

국어 영역

제 1 교시

홀수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서 행위에 대한 논의는 전통적으로 ‘정보 전달의 매개’와 ‘의미 구성의 사건’이라는 두 관점 사이에서 전개되어 왔다. 전자는 독서를 저자의 의도를 충실히 재현하는 활동으로 이해한다. 이 관점에서 텍스트는 완결된 의미를 담지한 매체이며, 독자는 그것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존재다. 따라서 바람직한 독서란 ‘저자의 의도’와 ‘텍스트에 담긴 객관적 의미’를 가능한 한 왜곡 없이 파악하는 것이다. 고전 교육의 다수는 이러한 관점에 기초해, 정해진 의미에 도달하는 것을 독서 성취의 기준으로 삼았다.

반면 후자의 관점은 텍스트의 의미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독자가 가진 배경지식·경험·가치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새롭게 생성된다고 본다. 즉, 독서란 일방적 ‘전달’이 아니라 쌍방적 ‘구성’이다. 동일한 작품이라도 독자 집단의 성격, 시대적 상황,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가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입장은 독자의 능동성을 강조하며, 텍스트를 해석적·개방적 장(場)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의미 구성의 자율성을 강조할 경우, 저자의 의도와 텍스트 자체의 구조가 무시될 위험이 있다. 저자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이 삭제된다면, 독서는 단순히 독자의 주관적 투사로 환원될 수 있다. 반대로 텍스트 의미의 고정성을 강조하면, 독자는 단순한 수신자로 축소되고, 해석의 다양성이 차단된다. 이러한 양극단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최근의 독서 이론에서 두드러진다.

예컨대, ‘수평 융합’이라는 해석학적 개념은 독자가 독자의 지평과 텍스트의 지평이 상호 충돌하고 조율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독자는 텍스트에 자신의 맥락을 투사하되, 동시에 텍스트가 지닌 낯섦과 저항을 통해 자기 이해를 변형시킨다. 또, ‘텍스트 지향성’을 강조하는 비평 이론은 텍스트가 독자에게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동시에, 해석을 촉발하는 구조적 장치를 내포한다고 본다. 결국 독서는 독자와 텍스트, 저자의 세계가 긴장과 상호작용을 이루며 의미를 산출하는 역동적 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독서를 ‘정보 전달의 매개’로 보는 관점은 독자를 수동적 존재로 이해하며, 저자의 의도 파악을 독서의 성취로 본다.
- ② 독서를 ‘의미 구성의 사건’으로 보는 관점은 텍스트를 열린 해석의 장으로 보며, 동일한 작품도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가 생성된다고 본다.
- ③ 의미 구성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독자가 저자의 의도와 텍스트 구조에 제약받지 않고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텍스트 의미의 고정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독자의 주관적 투사가 배제되는 대신, 해석 다양성을 확보하는 장점을 가진다.
- ⑤ 최근의 독서 이론은 독자와 텍스트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의미가 긴장과 조율 속에서 산출된다고 본다.

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독자는 텍스트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자기 경험을 반영하되, 동시에 텍스트가 가진 언어적 구조에 제약을 받는다. 텍스트는 독자의 임의적 해석을 허용하는 무한한 공간이 아니라, 일정한 방향과 맥락을 지시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 ① <보기>는 텍스트의 제약과 독자의 경험을 동시에 고려하는 점에서 윗글의 ‘텍스트 지향성’과 맥락을 같이한다.
- ② <보기>에서 텍스트의 제약은 저자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③ 윗글의 ‘수평 융합’ 개념과 달리, <보기>는 텍스트의 구조적 측면을 더 강하게 부각하고 있다.
- ④ 윗글에 따르면, <보기>는 해석의 완전한 주관화와 텍스트의 절대적 고정성을 모두 경계하는 입장과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보기>는 독자의 능동성과 텍스트의 저항을 동시에 인정하는 점에서, 독서 행위가 상호작용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3. 다음은 학생 A가 윗글을 읽고 수행한 활동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한 학생 A의 활동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학생 A는 윗글의 내용을 정리하며, 다음과 같이 활동하였다.

<보기>

- ① 독서를 단순히 저자의 의도를 복원하는 행위로 보는 관점은 독자를 수동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기록하였다.
- ㉡ 독자가 자유롭게 의미를 구성한다는 관점이 강조될 경우, 독서는 주관적 투사로 흐를 위험이 있음을 메모하였다.
- ㉢ ‘수평 융합’ 개념을 적용하여, 자신이 읽은 고전 소설의 의미가 개인적 경험과 대화하며 달라졌던 사례를 떠올렸다.
- ㉣ 텍스트 지향성은 독자의 맥락을 배제하고, 오직 텍스트의 구조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입장이라고 정리하였다.

- ① ⑦, ㉡ ② ⑦, ㉢ ③ ㉡, ㉣ ④ ⑦, ㉡, ㉢ ⑤ ⑦, ㉡, ㉣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은 흔히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규범 체계’로 이해되지만, 그 정당성과 구속력의 근거를 둘러싸고는 다양한 이론이 제시되어 왔다. 자연법론은 법의 정당성을 인간 이성에 내재한 도덕적 원리에서 찾는다. 이 관점에 따르면, 법은 단순히 국가 권력이 강제하는 명령이 아니라, 정의·선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구현할 때 비로소 ‘진정한 법’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불의한 법은 법의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마땅히 거부될 수 있다. 고전적 자연법론은 이러한 법-도덕의 내적 결합을 강조했으나, 근대 이후에는 도덕 원리를 ‘인간 존엄’이나 ‘보편적 인권’과 같은 규범적 토대로 재구성하는 시도도 이어졌다.

반면, 법실증주의는 법의 정당성을 도덕적 가치와 분리해 파악한다. 법은 권위 있는 제정 절차를 거쳐 성립한 규칙이며, 그 자체로 사회적 사실이다. 법실증주의자에게 중요한 것은 법이 어떻게 제정·집행되었는가이지, 그 내용이 정의로운가 하는 문제는 법학의 범위를 넘어선다. 이로써 법과 도덕의 엄격한 분리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때때로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결함 있는 법까지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대립은 헌법재판과 같은 실제 법적 절차에서도 드러난다. 예컨대 한 국가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을 때, 자연법론적 입장은 이를 보편적 자유권의 침해로 보아 위헌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법실증주의적 입장은 해당 법률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며, 내용적 정당성 판단은 입법자의 몫이라고 본다.

최근에는 이 둘을 결충하려는 시도도 등장했다. 대표적으로 하트는 법을 ‘1차 규칙’과 ‘2차 규칙’으로 구분했다. 1차 규칙은 개인의 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명령(예: 절도 금지), 2차 규칙은 이러한 규칙이 어떻게 제정·변경·해석되는지를 정하는 절차 규칙이다. 하트에 따르면, 법질서의 핵심은 바로 2차 규칙이 법체계를 자기 점검·수정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하트 역시 도덕과의 분리를 전제로 했기에, 법실증주의 계열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풀러는 ‘내재적 도덕’을 강조하며 하트를 비판했다. 그는 법이 법으로 기능하려면 최소한의 절차적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법은 일반적·공개적·비모순적·실현 가능해야 하며, 자의적으로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만약 법이 비밀리에 제정되거나, 자주 모순적으로 바뀌어 예측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법의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법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다는 것이다. 이는 법실증주의의 법-도덕 분리를 일정 부분 극복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오늘날 법이 직면한 난제는 단순히 “법은 도덕과 분리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국제 인권 규범, 헌법적 가치,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갈등 속에서 법은 도덕과 정치적 맥락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동시에 법은 절차적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해야만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의 본질을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보편적 가치와 법적 안정성 사이의 긴장’을 조율하는 과제로 남

아 있다.

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자연법론은 법의 정당성을 도덕적 가치 실현 여부에서 찾으며, 불의한 법은 거부될 수 있다고 본다.
- ② 법실증주의는 법과 도덕의 분리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 하려 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한다.
- ③ 하트는 법을 1차 규칙과 2차 규칙으로 구분하면서, 2차 규칙이 법체계의 자기 점검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 ④ 풀러는 법이 내재적 도덕을 결여하더라도, 적법 절차를 거쳐 제정되면 법으로 기능한다고 본다.
- ⑤ 오늘날 법은 인권 규범과 헌법적 가치 속에서 도덕과의 분리를 유지하기 어려우며, 동시에 법적 안정성도 요구된다.

5.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자연법론은 ‘법=국가 권력의 명령’이라는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 ㄴ. 법실증주의는 불의한 법이라도 정당한 제정 절차를 거쳤다면 법으로 인정한다.
- ㄷ. 하트는 법체계의 자기 수정 가능성을 강조했으나, 법과 도덕은 구분된다고 보았다.
- ㄹ. 풀러는 법이 최소한의 절차적 도덕을 갖추지 못하면 법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⑤ ㄴ, ㄷ, ㄹ

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학생의 이해를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학생 A: 법실증주의는 도덕과 분리를 강조했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인권 문제와는 무관하다.
- 학생 B: 풀러의 내재적 도덕 개념은 법이 법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법실증주의를 일정 부분 비판한다.
- 학생 C: 하트의 법 이론은 법적 안정성만을 강조할 뿐, 법체계의 자기 점검 기능을 고려하지 않았다.

- ① A와 C의 진술은 모두 적절하지 않다.
- ② A와 B의 진술은 모두 적절하다.
- ③ A와 B의 진술은 모두 적절하지 않다.
- ④ B와 C의 진술은 모두 적절하다.
- ⑤ B의 진술은 적절하고, A와 C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7. <보기>의 상황을 (가) 자연법론, (나) 법실증주의, (다) 풀러의 관점에서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한 국가에서 '언론 검열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정부 비판 기사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과도한 형벌을 부과한다. 이 법은 비밀리에 수차례 개정되면서, 국민은 자신이 어떤 경우에 처벌받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 ① (가)에서는 이 법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침해하므로 법이 아니라고 본다.
- ② (나)에서는 이 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도덕적 정당성과 무관하게 법으로 인정한다.
- ③ (다)에서는 이 법이 일반성·예측 가능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법으로 기능할 수 없다고 본다.
- ④ (나)와 달리 (다)는 법의 내재적 도덕을 강조하며, 적법 절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 ⑤ (가)와 (다)는 모두 도덕적 결함이 법의 존재 자체를 무효화 할 수 있다고 본다.

[8~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세기 전반, 예술 철학은 '예술적 의미'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축에서 갈등했다. 첫째는 형식주의다. 이는 예술 작품의 가치는 외적 참조가 아닌 작품 내부의 형식적 구성, 즉 선·색·리듬·구조와 같은 자율적 요소들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칸딘스키는 색채가 지닌 고유한 정동적 울림과 선의 배치가 곧바로 영적 체험을 환기한다고 주장하며, 재현 없이도 예술적 의미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입장은 음악의 '절대음악' 개념과 긴밀히 연결된다. 한 교향곡이 외부 세계를 묘사하지 않더라도, 주제의 변주·화성의 전개·리듬의 내적 필연성만으로 청자에게 독립된 의미망을 제공하는 것처럼, 회화나 건축도 자율적 형식의 긴장과 조화로써 독자적 의미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맥락주의다. 이들은 예술을 자율적 형식으로 환원할 수 없다고 본다. 동일한 색채와 구도라도 그것이 15세기 피렌체의 제단화인지, 20세기 아방가르드의 추상화인지에 따라 의미는 전혀 달라진다. 형식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놓인 사회적 제도·작가의 위치·역사적 담론 속에서 해석될 때 비로소 의미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아도르노는 예술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독립한다는 생각을 '자율성의 허상'이라 부르며, 작품의 형식조차 사회적 긴장의 매개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미'란 작품 내부가 아니라, 작품과 사회적 맥락의 상호작용 속에서 드러난다.

셋째는 해석학적 관점이다. 가다며는 예술을 단순한 형식 분석이나 사회 반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관람자가 속한 언어·전통·역사적 조건이 작품 해석에 필연적으로 개입한다고 주장한다. 즉, 작품의 의미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관람자의 지평과 작품이 형성된 지평이 충돌하고 융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동일한 추상화를 동아시아인이 볼 때 전통 산수화의 여백 개념을 연상하고, 서구인이 볼 때 음악적 리듬을 연상하는 것은 지평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의미란 결코 단일하지 않고, 잠정적·대화적 성격을 지니며, 새로운 해석 속에서 계속 생성된다.

이 세 입장은 상호 배타적으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실제로 예술 해석 과정에서 형식 분석·사회 맥락·해석자의 지평은 상호 얹혀 있다. 예컨대, 피카소의 「제르니카」는 형식적으로 왜곡된 인체와 파편화된 공간이 불협화음을 이루지만, 이를 단지 형식의 긴장으로만 이해한다면 작품이 가진 정치적 비판성은 사라진다. 반대로, 작품을 스페인 내전이라는 맥락에만 환원한다면, 그 복잡한 시각적 구성과 긴장은 간과된다. 나아가 오늘 날의 관람자가 이 작품을 경험할 때, 자신의 정치적·윤리적 감수성과 융합된 새로운 의미망이 추가로 생성된다. 이처럼 예술은 '형식의 자율성'과 '맥락 의존성', 그리고 '해석의 역사성'이라는 세 축의 긴장 속에서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

문제는 '보편성'의 가능성이다. 형식주의는 자율적 형식에서 보편성을 찾고, 맥락주의는 보편성 자체를 의심하며, 해석학은 대화적 지평 융합에서 형성되는 잠정적 합의로서의 보편성을 제시한다. 결국 예술 철학의 과제는, 보편성과 상대성이라는 양극단을 넘어서, 형식·맥락·해석이 어떻게 변증법적으로 얹혀 의미를 생성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형식주의는 작품 내부 요소들의 긴장과 조화를 자율적 의미 생성의 근거로 삼는다.
- ② 맥락주의는 형식이 전혀 의미 형성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③ 해석학은 의미를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 해석자의 지평과 작품의 지평의 융합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 ④ 「제르니카」를 형식적 긴장으로만 이해하면, 작품의 정치적 합의가 소거될 수 있음을 글은 지적한다.
- ⑤ 형식주의, 맥락주의, 해석학은 각각 의미의 발생 조건을 달리 보지만, 실제 예술 해석에서는 상호 얹혀 작동한다고 글은 말한다.

9.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형식주의는 의미의 보편성을 문화·역사 맥락에서 찾는다.
- ㄴ. 맥락주의는 동일한 형식도 시대와 제도에 따라 상이한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 ㄷ. 해석학은 관람자의 전통과 언어가 작품 해석에 필연적으로 작동한다고 본다.
- ㄹ. 형식주의는 음악의 절대음악 개념과 연결되어 설명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0. <보기>의 사례를 윗글의 관점에 따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갑: 한 건축 작품은 동일한 구조적 대칭을 지녔지만, 한 사회에서는 ‘신성한 권위의 상징’으로, 다른 사회에서는 ‘미니멀리즘 미학의 구현’으로 해석되었다.

을: 한 연주자가 고전 교향곡을 연주했을 때, 어떤 청자는 화성의 전개에서 내적 긴장을 읽었고, 다른 청자는 전통적 가치에 대한 향수를 경험했다.

- ① 갑에 대해 형식주의는 동일한 대칭 구조가 자율적 의미를 제공한다고 본다.
- ② 갑에 대해 맥락주의는 서로 다른 사회적 제도와 담론이 의미 차이를 만든다고 본다.
- ③ 을에 대해 해석학은 청자의 역사적·문화적 지평에 따라 해석 차이가 발생한다고 본다.
- ④ 을에 대해 형식주의는 화성의 내적 전개가 독립적 의미망을 제공한다고 본다.
- ⑤ 갑에 대해 해석학은 사회 제도와 무관하게 의미가 고정되고 본다.

11. 윗글에 쓰인 ‘반영’의 의미와 맥락상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는 거울에 얼굴이 선명히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 ② 신제품 가격은 원자재 비용 상승이 반영되어 책정되었다.
- ③ 보고서는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작성되었다.
- ④ 그 시인의 작품에는 시대적 고통과 사회적 갈등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 ⑤ 회의 결과는 회의록에 빠짐없이 반영되었다.

[12~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간 행위의 궁극적 목적을 ‘행복’으로 규정하였다. 그는 행복을 쾌락이나 감각적 충족으로 한정하지 않고, 이성적 능력을 최고의 탁월성에 따라 활동하는 삶으로 이해하였다. 행복은 인간의 본질적 기능인 이성적 활동의 완성과 관련되며, 덕은 그러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성품적 상태다.

그는 덕을 ‘중용(中庸)’의 질전에서 찾았다. 중용은 단순한 평균값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이성적 숙고에 의해 선택되는 ‘탁월한 행위 양식’을 의미한다. 예컨대 용기는 무모함과 비겁함 사이에서, 관대함은 낭비와 인색 사이에서 실현된다. 중요한 것은 덕이 습관적 훈련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도덕성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반복적 행위와 공동체적 교육을 통해 내면화된다.

그는 또한 인간을 ‘폴리스적 동물’로 규정했다. 이는 도덕적 덕이 고립된 개인의 차원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삶을 통해 비로소 실현된다는 의미다. 법과 제도는 덕을 기르는 교육적 장치로 기능하며, 개인의 행복은 공동체적 선(善)과 긴밀히 연결된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은 개인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을 분리하지 않고, 윤리와 정치의 긴밀한 연속성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현대적 시각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덕의 내용과 범위가 공동체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윤리 원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유 시민’ 중심의 덕 개념은 노예·여성·외국인을 배제한 그리스 폴리스의 역사적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그럼에도 그의 덕 윤리는 인간 행위의 도덕적 의미를 공동체적 삶 속의 습관과 성품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철학적 의의를 가진다.

(나) 칸트는 『실천 이성 비판』과 『도덕 형이상학 기초』에서 도덕의 근거를 공동체적 습관이나 경험적 조건에서 찾지 않고, 이성의 자율성에 두었다. 그는 도덕 법칙을 조건적 명령이 아닌 ‘정언 명령’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특정 목적을 위한 수단적 행위가 아니라, 행위 그 자체가 보편적으로 타당해야 한다는 원리다.

칸트가 제시한 정언 명령의 한 형식은 “네 행위의 준칙이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이다. 이 원리에 따르면, ‘거짓 약속을 해도 된다’는 준칙은 보편화될 수 없으므로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 다른 형식은 “인간을 단순히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것이다. 이는 타인의 인격을 존엄한 존재로 인정하고, 이성적 존재가 스스로 입법하는 자율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요구한다.

칸트에게 도덕적 가치는 결과가 아니라 동기에서 비롯된다.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가지려면 외적 보상이나 감정적 충동이 아니라, 오직 ‘의무’에 대한 존경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설령 행위가 불운한 결과를 낳더라도, 그것이 정언 명령에 합치된다면 도덕적으로 옳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칸트의 도덕 철학도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지나치게 형식적·추상적이라는 점, 그리고 구체적 상황에서의 행위 지침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예컨대, 살인자가 피해자의 행방을 묻는 상황에서 조차 거짓말을 허용하지 않는 칸트의 입장은 현실적 삶과 괴리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칸트의 윤리학은 도덕의 보편성과 인간 존엄성을 확립한 철학적 토대로서 현대 인권 담론에도 여전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12.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도덕적 행위가 반복된 습관을 통해 내면화된 성품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 ② (나)는 행위의 결과와 무관하게 도덕적 가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가)와 (나) 모두 도덕적 행위의 기준을 공동체의 관습적 규범에 두었다.
- ④ (가)는 공동체적 맥락에서의 덕 형성을 중시하나, (나)는 이성적 자율성에 의한 의무 수행을 강조한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도덕적 행위가 인간 본성을 실현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13. 다음 중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의 내용을 보편적 원리로 제시하기보다, 구체적 상황에서 이성적 판단을 통해 규정된다고 본다.
- ㄴ. 칸트의 정언 명령은 상황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적 준칙의 형태를 띤다.
- ㄷ.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칸트는 도덕적 행위의 동기를 행위자의 성향이나 습관보다 의무의식에서 찾았다.
- ㄹ.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정치적 공동체와 밀접히 연결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ㄹ

14.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특정한 덕은 문화와 전통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 ② 칸트에 따르면, 살인자를 속이는 거짓말조차 보편화 불가능 하므로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 ③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 모두, 행위가 단순히 외적 보상에 의해 결정될 경우 도덕적 가치를 갖지 않는다고 본다.
- ④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는 법이 개인을 덕스럽게 훈련시키는 장치가 될 수 있다.
- ⑤ 칸트의 입장에서는 특정 공동체의 전통적 관습이 도덕의 근거로 인정될 수 있다.

15. <보기>의 상황을 (가)와 (나)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한 교사가 학생들의 거짓말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교사 A는 “거짓말은 상황에 따라 용납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학생이 반복적으로 정직한 습관을 기르는 것”이라 하였다. 반면 교사 B는 “거짓말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타인을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 ① (가)에서는 교사 A의 태도가 옳다고 보지만, (나)는 교사 B의 태도가 정당하다고 본다.
- ② (가)는 교사 B의 입장에 더 가깝고, (나)는 교사 A의 입장에 더 가깝다.
- ③ (가)와 (나) 모두, 거짓말은 상황과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에 따라 금지된다고 본다.
- ④ (가)에서는 반복적 습관을 강조하므로 거짓말의 윤리적 평가가 불가능하다.
- ⑤ (나)에서는 결과적으로 신뢰를 해치지 않는 거짓말은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16. <보기>를 읽고, 이를 (가), (나)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한 국가는 법으로 ‘시민 모두가 봉사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A 시민은 자발적 기쁨으로 봉사에 참여했으며, B 시민은 법을 어길까 두려워 억지로 참여했다.

- ① (가)에서는 A 시민이 습관적 행위를 통해 덕을 형성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 ② (가)에서는 B 시민도 반복적 행위를 통해 결국 덕을 습관화 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나)에서는 A 시민의 행위가 진정한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고 본다.
- ④ (나)에서는 B 시민의 행위도 외적 동기에 따른 것이므로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본다.
- ⑤ (가)와 (나) 모두, 행위자의 내적 동기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17. 윗글에서 사용된 ‘자율성(自律性)’은 자신이 스스로 보편적 법칙을 세우고, 그것을 의지에 따라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가장 유사한 맥락의 문장은?

- ① 그는 외부 간섭 없이 스스로 규칙을 세우고, 그 규칙에 따라 행동했다.
- ② 학생들은 학교 규정에 억지로 복종하면서도 불만을 감추었다.
- ③ 군인은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 그대로 따랐다.
- ④ 그는 사회의 압력에 굴복하여 마지못해 결정을 내렸다.
- ⑤ 아이들은 부모의 지시에 따라 생활 습관을 길렀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1~3] 독서론

지문 분석

1. 텍스트 지향성

- 독서를 정보 전달, 저자의 의도 복원으로 보는 입장.
- 텍스트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고, 독자는 수동적.
- 장점: 의미 해석의 객관성 확보 가능.
- 한계: 해석의 다양성·독자의 능동성 배제.

2. 독자 지향성

- 독서를 의미 구성의 사건으로 보는 입장.
- 독자의 경험·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짐.
- 장점: 해석의 다양성, 새로운 의미 창출 가능.
- 한계: 주관적 투사로 흐를 위험.

3. 최근 독서 이론의 조율

- 독서란 텍스트와 독자의 상호작용 과정.
- 의미는 고정되지 않고, 긴장과 대화를 거쳐 산출.
- '수평 융합' 개념이 대표적: 독자 지평 + 텍스트 지평의 대화.

출제 포인트:

- 서로 다른 관점의 핵심 구분(고정성 vs 구성성)
- 독서의 과정에서 텍스트와 독자의 역할
- 최근 이론의 절충적 성격
- 보기/학생 활동을 통한 적용 문제

문항 해설

1번

→ 정답: ④

(해설) 텍스트 의미의 고정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객관적 해석’을 중시하지만, ‘해석 다양성을 확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해석을 제한하기 때문에 다양성을 억제하는 한계가 있다. 나머지 선지는 지문 내용과 부합한다.

2번

→ 정답: ②

(해설) <보기>에서 말하는 ‘텍스트의 제약’은 언어적 구조가 지시하는 의미적 방향을 뜻 한다. 이를 곧바로 저자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의 고려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머지는 지문과 부합한다.

3번

→ 정답: ④ (㉠, ㉡, ㉢)

(해설)

- ㉠: 텍스트 지향성의 한계를 올바르게 파악함 → 적절.
- ㉡: 독자 지향성의 위험성을 인식한 것 → 적절.
- ㉢: 수평 융합 개념을 사례로 적용한 것 → 적절.
- ㉣: 텍스트 지향성은 ‘독자 맥락 완전 배제, 구조만 절대적 기준’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텍스트 의미를 고정적으로 보는 것이지, ‘독자 맥락=전혀 무시’로 단언되진 않음 → 부적절.

[4~7] 독서 1

지문 분석

1. 지문 주제와 맥락

- 주제: 법의 정당성과 존재 근거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 전개:
 - ① 자연법론 : 법과 도덕의 결합 → 불의한 법은 법이 아님
 - ② 법실증주의 : 법과 도덕의 분리 → 절차적 정당성만 확보되면 법으로 인정
 - ③ 하트 : 법을 1차 규칙과 2차 규칙으로 구분 → 법체계의 자기 점검 강조, 그러나 여전히 도덕과 구분
 - ④ 풀러 : 법의 '내재적 도덕'을 강조 → 절차적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법으로 기능 불가
 - ⑤ 현대적 시사점 : 인권, 헌법 가치, 사회적 맥락 속에서 법은 도덕과 다시 결합을 요구받음. 동시에 안정성도 필요.

즉, 법=절차적 합법성 vs 도덕적 정당성이라는 전통적 대립을 현대적으로 재조정하는 논의.

2. 핵심 개념 정리

- 자연법론
 - 법의 본질 = 도덕적 가치 실현.
 - 불의한 법은 법이 아님.
 - 법과 도덕의 일체성 강조.
- 법실증주의
 - 법=국가가 정한 규칙(명령) → 적법 절차 거쳤으면 무조건 법.
 - 도덕 여부는 별개.
 -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중시.

- 하트

- 법을 “1차 규칙”(행위 의무 규율) + “2차 규칙”(1차 규칙을 평가·수정하는 메타규칙)으로 구분.
 - 이로써 법체계는 자기 점검, 자기 수정 가능.
 - 그러나 도덕과는 구분된 체계.

- 풀러

- 법의 내재적 도덕(일반성, 명확성, 일관성, 공표성, 예측 가능성 등)을 강조.
- 이를 갖추지 못하면 ‘법’으로 기능 불가.
- 실증주의 비판: 단순 절차만으로는 부족.

- 현대적 결론

- 인권·헌법 가치가 법과 도덕의 결합을 요구.
- 그러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도 필요.
- 결국 법은 도덕성과 안정성의 긴장 속에서 이해되어야 함.

3. 출제 포인트

- 법의 존재론적 정의: 법=도덕 포함? 절차만?
- 자연법 vs 법실증주의 차이: 법의 정당성 근거를 어디서 찾는가.
- 하트의 규칙론: 1차·2차 규칙의 구분.
- 풀러의 내재적 도덕: 법이 법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 현대 적용 문제: 인권·언론 자유·절차 정당성 같은 사례 제시 후 관점별 해석 비교.

문항 해설

4번

→ 정답: ④

(해설) 풀러는 법이 적법 절차만 거쳤다고 해서 법으로 기능한다고 보지 않았다. 그는 법이 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내재적 도덕(일반성·명확성·예측 가능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④는 글과 부합하지 않는다.

5번

→ 정답: ③

(해설) ㄱ은 옳지 않다. 자연법론은 법을 단순히 국가 권력의 명령으로 보지 않고, 도덕적 정당성을 갖춘 규범으로 이해한다. ㄴ은 옳다. 법실증주의는 불의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면 법으로 인정한다. ㄷ도 옳다. 하트는 법과 도덕의 구분을 유지하면서도 법체계의 자기 수정 가능성을 강조했다. ㄹ 역시 옳다. 풀러는 내재적 도덕이 결여되면 법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답은 ㄷ, ㄹ이다.

6번

→ 정답: ⑤

(해설) A는 옳지 않다. 법실증주의는 도덕과 분리를 강조했으나, 현대 사회의 인권 문제와의 관계성 논의는 여전히 가능하다. B는 옳다. 풀러의 내재적 도덕 개념은 법실증주의를 비판하면서 법의 최소 조건을 제시한다. C는 옳지 않다. 하트는 단순한 안정성 강조에 머무르지 않고, 2차 규칙을 통해 법체계의 자기 점검 기능을 설명했다. 따라서 B만 적절하다.

7번

→ 정답: ⑤

(해설) (가) 자연법론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의한 법은 법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나) 법실증주의는 적법 절차를 거쳤다면 도덕성과 무관하게 법으로 인정한다. (다) 풀러는 법이 내재적 도덕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으로 기능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

서 (가)와 (다)는 공통적으로 도덕적 결함이 법의 존재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8~11] 독서 2

지문 분석

1. 지문의 주제와 전개

- 지문은 예술 작품의 의미 형성을 두 축 — 형식의 자율성과 사회·역사적 맥락 의존성 — 으로 대비하면서, 이 둘의 긴장과 상호 작용을 논한다.
- 단순히 ‘형식 vs 맥락’의 이분법이 아니라, 현대 예술론의 과제를 양자의 조화적 분석으로 제시한다.

2. 핵심 개념 정리

1. 형식 자율성론

- 형식은 단순한 ‘내용 전달 수단’이 아니라 작품 의미를 스스로 형성하는 구성 원리.
- 예시:
 - 세잔: 대상을 구조적 질서로 환원 → 재현 개념의 변형.
 - 큐비즘: 다중 시점 병치 → 화면 자체가 의미 생성의 장.
 - 칸딘스키: 색채·선 자체가 감정과 영적 상태를 환기.
 - 음악의 절대음악론과 비교: 내용 서술 없이 형식 전개만으로 의미 성립.

2. 맥락 의존성론

- 형식만으로는 의미가 고정되지 않음.
- 작품은 제작된 시대·사회·제도적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짐.
- 동일한 형식도 시대·작가의 위치·미술 제도에 따라 다른 의미 부여 가능.
- 해석학적 확장: 지평 융합. 관람자의 역사·언어·문화 배경이 형식과 만나 새로운 의미를 창출.

3. 지문 구조

- ① 인상주의 이후의 전환 → 세잔 → 큐비즘 → 형식 자율성의 등장

- ② 절대음악 개념과 연결 → 추상화 운동 → 형식의 의미 자체화
- ③ 형식 자율성론의 비판 → 사회·역사 맥락의 중요성 제기
- ④ 해석학으로 확장 → 관람자 배경과 형식의 상호작용 → 의미의 재구성
- ⑤ 결론: 형식 자율성과 맥락 의존성은 상호 보완적임.

4. 출제 포인트

- 대조 구조: 형식 자율성론 vs 맥락 의존성론
- 예시 연결: 세잔·큐비즘·칸딘스키 ↔ 사회 제도·해석학
- 개념 전환: 형식의 독립 → 맥락 속 상호작용
- 핵심 단어: '재현 변형', '자율성', '맥락', '지평 융합', '상호 보완'

5. 사고 확장

- 수험생이 단순한 정리 수준을 넘어, 예시와 이론을 교차 연결해야 한다.
- '형식만으로 의미를 설명할 수 있나?'라는 비판을 이해하고, 해석학적 맥락 의존성이 어떻게 대안이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
- 최종적으로는 두 입장이 배타적이 아니라 보완적이라는 지점이 핵심 결론.

문항 해설

8번

→ 정답: ②

(해설) 맥락주의는 형식이 전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 맥락과 상호작용할 때 의미를 형성한다고 본다. 따라서 “형식이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지나치게 단정적이다.

9번

→ 정답: ④

(해설) ㄴ(맥락주의는 동일 형식도 시대·제도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 ㄷ(해석학은 전통·언어·역사가 해석에 작동한다), ㄹ(형식주의와 절대음악의 연관성)은 모두 적절하다. ㄱ은 ‘보편성을 문화·역사 맥락에서 찾는다’고 한 것으로, 이는 맥락주의이지 형식주의가 아니다.

10번

→ 정답: ⑤

(해설) 해석학은 의미가 고정된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관람자의 지평과 작품의 지평이 충돌·융합하며 잠정적 의미를 만들어낸다고 본다. 따라서 ⑤는 부적절하다.

11번

→ 정답: ④

(해설) 지문에서의 ‘반영’은 사회·역사적 조건이나 갈등이 작품 속에 드러나는 것을 뜻한다. 이는 ④번과 의미가 동일하다. ①은 물리적 ‘비침’, ②·③·⑤는 ‘의견·상황의 반영’으로 행정적·실무적 의미이므로 다르다.

[12~17] 독서 3

지문 분석

I. 지문 구조

- (가)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
 - 도덕은 덕 형성에 있음.
 - 덕은 습관적 행위와 사회적 맥락 속 훈련을 통해 획득.
 - 덕의 핵심은 중용: 상황적 맥락에서 과잉과 결핍 사이의 적절한 선택.
 - 도덕 판단은 보편적 규칙보다는 맥락적 지혜(실천적 지혜)에 의존.
 - 개인의 덕은 정치 공동체의 선과 연결됨.
-
- (나) 칸트 윤리학
 - 도덕은 의무(duty) 준수에 있음.
 - 도덕 원리의 기준: 정언 명령
 - “네 행위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 행위의 도덕 가치는 외적 결과가 아니라 동기에 의해 결정.
 - 도덕적 행위자는 자율적 존재: 자기 입법(self-legislation)한 법칙에 스스로 복종.
 - 도덕은 역사·관습과 무관하게 보편적 타당성을 지님.

II. 핵심 개념 비교

구분	(가) 아리스토텔레스	(나) 칸트
도덕의 중심	덕 (중용)	의무 (정언 명령)
행위 판단 기준	맥락적 상황, 실천적 지혜	보편적 법칙 가능성
도덕 가치 근거	습관·공동체·삶의 맥락	동기 (의무로서 행위)
주체의 성격	공동체 속에서 형성되는 덕 있는 인간	자율적 입법자로서의 인간
보편성	관습+지혜 속의 맥락적 보편	선협적, 이성에 근거한 보편

III. 출제 포인트

1. 도덕 규준의 근거 차이

- (가): 행위의 맥락 속 ‘중용적 판단’ → 보편성은 공동체와 경험적 삶 속에서 형성
- (나): ‘정언 명령’이라는 보편적 법칙 → 초역사적·초문화적 기준

2. 행위 도덕성 평가 기준

- (가): 결과적 삶의 품성(습관화된 덕)
- (나): 행위의 동기(의무로서 행위인가?)

3.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

- (가): 개인의 덕은 공동체 선과 직결
- (나): 공동체와 무관하게, 도덕성은 주체의 자율적 이성에서 확보

4. 자율성 개념의 차이

- (가): 맥락 속 자기조절(중용 선택)
- (나): 자기 입법적 이성에 의한 보편적 준칙 준수

IV. 출제 난이도 포인트

- 적절·부적절 판단: 아리스토텔레스 윤리가 단순히 “관습 윤리”에 그치지 않음을 잡아내는 문제 가능.
- 선택지 분별력: 칸트 윤리에서 “조건적 준칙”과 “정언 명령”의 구분이 핵심.
- 보기 적용 문제: 사례(예: 언론 검열법, 교사 지도 방식 등)를 제시해, 관점별 해석 차이를 적용하도록 출제.
- 어휘 문제: ‘자율성’ 같은 개념어의 철저한 문맥적 의미를 다른 문장 사례와 비교하도록.

V. 정리

- (가)와 (나)는 모두 도덕적 주체성을 강조하지만,
- (가)는 맥락·습관·공동체라는 경험적 윤리학

- (나)는 선협적 보편성·자율성을 강조하는 형식적 윤리학으로 대조된다.

문항 해설

12번 → 정답: ③

(해설) (가)는 덕의 형성을 공동체 맥락 속에서 보지만, 도덕 기준을 ‘관습적 규범’에 단순히 두지는 않는다. 이성적 중용 판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둘 다 도덕 기준을 공동체 관습에 둔다”는 진술은 부적절하다.

13번 → 정답: ④

(해설) ㄱ은 맞다(아리스토텔레스는 상황적 중용을 강조). ㄴ은 틀리다(칸트의 정언 명령은 조건적 준칙이 아니라 보편적 도덕 법칙). ㄷ은 맞다(칸트는 동기를 의무의식에서 찾음). ㄹ은 맞다(아리스토텔레스 윤리는 정치 공동체와 연결). 따라서 ㄱ·ㄷ·ㄹ만 옳아 ④가 정답이다.

14번 → 정답: ⑤

(해설) 칸트는 공동체 관습을 도덕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⑤가 틀린 추론. 나머지는 (가)와 (나)의 논지와 부합한다.

15번 → 정답: ①

(해설) (가)에서는 습관과 중용을 통한 덕 형성을 강조하므로 교사 A(상황적 맥락과 습관 강조)에 가깝다. (나)에서는 거짓말을 원칙적으로 금하는 의무론이므로 교사 B에 부합한다. 따라서 ①이 정답.

16번 → 정답: ④

(해설) (나)에서 B 시민의 행위는 ‘의무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④는 틀린 설명.

17번 → 정답: ①

(해설) ‘자율성’은 ‘외부 강제가 아닌 자기 입법과 자기 준수’의 개념이다. ①은 이 정의에 정확히 부합한다. 나머지는 외부 권위·규정·압력에 의한 타율적 복종을 나타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예상 등급컷 (감점 기준)

-0 ~ -3 : 1등급

-4 ~ -6 : 2등급

-7 ~ -11 : 3등급

이번 Turbine 국어 모의고사 F 1회는 독서론+독서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행 평가원 독서 체계에 충실하면서도, 수험생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도록 난이도를 설계했습니다. 체감 난도는 작년 수능보다 다소 높을 수 있으나, 평가원이 설정할 수 있는 난이도 상한선을 의도적으로 넘지 않도록 조율했습니다.

특히 이번 세트에서는 최근 평가원 기조에서 다소 소강 상태에 있던 ‘ㄱㄴㄷ형 문항’의 부활을 시도했습니다. 단순 독해력이 아닌, 세부 개념 간 정교한 구분 능력을 요구하는 변별력 포인트로 작동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이해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학생 활동 평가,

구체적 사례 적용,

어휘·개념의 문맥적 사용 판단

등을 적극 반영하여, 실제 수능 지문을 읽을 때 수험생이 겪게 될 다층적 사고 과정을 재현하고자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본 회차는

평가원 스타일의 충실한 재현

난이도 상·중·하의 균형

새로운 시도(ㄱㄴㄷ 보기 부활, 신유형 적용)

을 모두 아우르는 세트로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 수험생 여러분이 독서 영역에서의 정밀한 독해력과 논리적 구분 능력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